

近刊 獸醫學文獻 紹介

Veterinary Medical Review(1/86)

이 책은 수의 임상에 관한 종설로서 매년 두 번씩 발간되고 있는데 독일의 레버쿠센에 있는 바이엘 그룹의 동물약품제약회사에서 발행하는 수의학 전문서적이다.

1986년도 제1권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여 보면 총 17항목의 연구논문 또는 임상적 치험례(증례보고) 및 1항목의 사진보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자는 Dr. H. Wassmuth 이다.

주요내용은 꿀벌옹애(Varoa sp)에 대한 방제, 소의 외부 기생충과 살충제 효력에 관한 시험성적, 젖소에 있어서의 진드기에 의한 경제적 피해 등이 중점적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전유기의 유방염 치료를 위시하여 반추수(물소, 소, 양)에 있어서의 안과질환에 대한 수술례, 개의 눈꺼풀 종양 및 흉강내 이물에 대한 진단 및 외과적 처치, 낙타의 식도폐쇄증에 대한 수술, 암소의 체내이물 증례보고, 처녀우 젖꼭지에 발생한 섬유소성 유두종양(Fibropapilloma), 송아지의 기형, 망아지에서의 양측성 Guttural Pouch Tympanitis에 의한 폐사부검례, 양에 있어서의 뇌낭미충증에 대한 프라지콴텔의 치료효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있어서의 구제역(FMD; Foot and Mouth Disease) 발생보고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후미에 사진보고로 송아지에 있어서의 선천성 아트로그리포시스 복합증(Arthrogryposis Multiplex Congenita)이 실려있다.

각 항목별로 매우 평이하게 논술되어 있으며 참고도표와 사진재료가 설명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임상증례보고에 있어서는 독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선택해서 읽을 수 있으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책은 비매품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독일 바이엘회사 또는 한국바이엘화학(주)에 문의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tatistical Procedures

for Agricultural Research

- 농사시험연구를 위한 통계적 방법(1986) -

이 책은 본래 수의학 전문서적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농업 또는 농사시험연구에 대한 통계적 처리와 이해를 위한 좋은 참고서적이므로 여기에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래 이 책은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의 고메쓰박사에 의하여 집필된 것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농촌진흥청(농업경영관실)에서 장석환(계명대 교수), 채영암(서울대 교수), 이영만(전남대 교수), 한원식(농진청 전산처리관) 등의 공동 번역집필로 우리말로 발간된 바 있다.

이 책에 서술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험의 요소, 단요인 실험 및 2인자 실험, 3요인 또는 그 이상의 요인에 의한 실험, 처리평균간 비교, 다수관측 데이터의 분석, 결측구 수정과 변수변환, 연속시험 데이터의 분석, 회귀와 상관분석, 카이자승 검정, 시험구의 표본추출 등 총 544페이지로 되어 있다.

수의 임상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으나 사실상으로는 임상에서 얻어지는 각종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과 이해를 위해서는 응용 또는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책이다. 특히 단순한 임

상증례보고만으로서가 아니라 국내의 주요 학술 잡지(수의학회지, 수의공중보건학회지 기타 전문영역별 학회지)에 임상논문을 발표한다거나 국제회의(세계수의사회 또는 아시아수의사연맹 총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에는 기본통계처리가 큰 의미를 갖게 된다(대학원생에게는 필수적이다).

근래에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계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실험 또는 임상 데이터의 분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비매품으로 간행되었으며 농촌진흥청 농업도서관 또는 산하기관(가축위생연구소 등)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世界를 바꾼 作物 (1987)

이 책은 수의학에 관한 전문서적은 아니지만 동물(특히 가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수의사들에게 식물(특히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의 이야기가 반대급부적으로 흥미로울 수도 있으며 우리 수의사회 회원들 중에도 농장을 겸직으로 경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본래 이 책은 일본의 藤巻宏씨와 鶴飼保雄씨가 공동저술한 것인데 최근(1987)에 松岩 金寅煥박사(전 농촌진흥청장)에 의하여 번역되었으

며 농진회(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에서 총서 제4권으로 간행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벼, 밀, 옥수수, 감자, 빵밀, 사탕무우, 호밀, 목초, 토마토, 양배추 그리고 표고버섯 등에 관한 품종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쓰여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녹색혁명(다수확계 벼 품종 개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며,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특히 인디언의 선물 옥수수, 사탕을 만드는 사탕무우, 최초의 인조작물 호밀, 야초에서 변신한 목초, 변화하는 양배추 등 사료작물로서도 이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작물들에 관하여는 우리 수의사들도 한번씩은 읽어 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료로 소모되고 있는 옥수수의 거의 전량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현실과 대만의 양돈업과 사탕수수 업계의 관계, 우리나라의 야초와 외국으로부터 해마다 수입해서 파종해야만 하는 목초의 종자 등등... 수의분야가 아니라고 간파해 버리기엔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이 책은 총 18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매품으로 간행되었다. 농진회 정회원(퇴직자) 및 명예회원(연구관급 이상 현직자)들에게 역자증정이 되어 있으므로 쉽게 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 가축위생연구소 姜英培)